특파원보고

# 인플레이션 파고에 흔들리는 미국 경제



**박용범** | 매일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 뉴욕대학교 로스쿨 석사(LLM)
- 매일경제신문 기업경영팀장
  청와대 출입기자
- 저서 『블록체인 에스토니아처럼』

## 물류난 등 겹치며 가전제품 제때 못 구해

기자가 가깝게 지내는 지인 A씨의 사연이다.

지난해 말 뉴욕의 인우드(Inwood) 지역에 첫 보금자리를 마련했다는 소식에 축하 인사를 건넸다. 그런데 A씨의 반응이 영 시원치 않았다. A씨는 고민이 생겼다는 말을 꺼냈다.

통상 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냉장고는 붙박이(built-in) 가전제품으로 여기고 주택 매매 때 포함해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주택 매도인이 냉장고가 노후했다며 새 냉장고는 매수인이 새로 사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줄 몰랐기 때문이다.

별문제 없이 새 냉장고를 주문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던 A씨는 낭패를 만났다. 해당 주택에 맞는 냉장고를 주문했는데 배송까지 4개월이 걸린다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잦아들며 코로나19 팬데믹 전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뉴욕 맨해튼 타임스 스퀘어 일대 모습.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여러 유통채널을 알아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글로벌 공급망 혼란·물류난 등이 겹치며 가전제품을 제때 구할 수가 없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다. 공급은 이렇게 제약이 생겼는데 막대한 돈이 풀리며 수요는 거꾸로 늘어났다. 가구당 수천 달러씩 재난지원금을 나눠줬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여행 등에 소비하지 못하고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며 가전제품을 비롯해 집안 환경을 개선하는 제품들에는 가수요까지 붙었다. 특히 고급 제품일수록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

A씨는 할 수 없이 입주 날짜를 늦추고 에어비앤비 생활을 시작했다. 어린 두 자녀가 있는데 냉장고 없는 집에서 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극단적 수급 불균형이 생기다 보니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3년간 미국 주재원 생활을 마치고 최근 귀국한 B씨.

부임 때 계약한 리스 차량의 만기가 되자 리스 회사에서 통 사정을 해왔다. 리스 차량을 매수하지 말고 가능한 반납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정상적

인 상황이라면 리스 계약 만기 때 차를 반납하는 것이 리스 계약자에게 유리하다. 계약 종료 때 잔존가치로 차를 사들일 수 있지만, 시세보다 높은 가격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 중고차 시세가 2~3년 전 상정했던 잔존가치를 훨씬 뛰어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잔존가치로 차량을 인수한 직후에 바로 중고차 시장에 팔면 수천 달러의 현금을 챙길 수 있다. 이런 시세 차익이 생기며 이제 리스 차량을 반납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리스 회사들이 인력난 등 이런저런 이유로 타이틀(자동차등록부) 이전을 미루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파견 기간을 마치고 귀국하려던 주재원 처지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된다. 한국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리스 회사가 의도적으로 일을 지연시킨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문서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다 보면 시간 제약이 있는 사람은 명의 이전을 하지 못해 결국 차를 반납하게 된다. 차량 공급과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며 나타난 현상이다.

## 수급 불균형으로 자동차 웃돈 줘야 구매

최근 뉴저지주 패러무스에 있는 현대차 딜러숍을 방문했을 때 일이다. 딜러는 인기 차종인 '팰리세이드'의 경우 웃돈 1만 달러를 줘야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딜러가 권장소비자가격(MSRP)에서 수천 달러씩 구매자에게 할인을 해주거나 리베이트를 주던 관행에서 완전히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딜러는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을 웃돌고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차익을 노린 투기적 매입에 노출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전 세계 모든 자동차를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에 살 수 있는 시장

이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반도체 공급난·물류난 등으로 극심한 수급 불균형이 시작되며 자동차는 단일 품목 중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 1월 기준 중고차 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40.5%나 뛰었다. 이제 자동차는 명품처럼 확보만 할 수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투자(?)의 대상이 됐다.

기자가 사는 뉴저지 일대를 다니다 보면 주택을 짓다 말고 방치한 듯한 모습을 가끔 목격할 수 있다. 특히 신축 중인 주택 차고 문을 합판으로 막아 놓은 모습을 보게 된다. 차고 문 공급에 제약이 생기며 나타난 진풍경이다.

부동산 경기가 활황세를 타며 건축자재 수요가 급증했지만,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는 현상은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대비 7.5% 올랐다.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은 미국 경제의 최대 위협 요소가 됐다. 공급망 혼란과 물류난 영향을 받은 상품 가격은 시간이 가면 안정세를 찾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주택 가격, 임차료와 임금처럼 한번 오르면 다시 내려가지 않는 요소들이다.

## 극심한 구인난…트럭 기사 8만 명 부족

미국은 현재 극심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트럭 기사가 대표적이다. 이 분야에서만 약 8만 명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팬데믹 이전에 트럭 기사는 1마일에 0.4~0.5달러를 수당으로 받았다. 100마일을 달리면 40~50달러를 받는 셈이다. 1시간당 평균 50마일(약 80㎞)을 주행한다고 가정하면 시간당 임금은 20~25달러다. 하지만 이 정도 임금으로 트럭 기사를 구할 수는 없다.

거주지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사이트인 잡오지오(Jobozio)에 따르면 기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아마존 배송기사를 시간당 30달러에 구한다는 구인광고가 떠 있다. 한국과 달리 광활한 국토를 가진 미국에서 트럭 기사는 외로움과 싸우는 직업이다.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패턴이 아

니며, 식사를 제대로 하기 어려워 이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팬데믹 이후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인력 연쇄 이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반이민 정책으로 이민자가 채웠던 이런 일자리 시장은 붕괴하고 있다.

뉴욕 맨해튼 거리를 걷다 보면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구인공고다. 맨해튼 미드타운에 있는 한 스타벅스는 입구에 인상적인 구인공고를 내걸었다. 대학 장학금·의료보험·스포티파이(음원사이트) 프리미엄 제공 등을 혜택으로 내세웠다.

뉴욕 유니온스퀘어에 있는 전자제품 전문 유통체인인 베스트바이에서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라는 광고판을 가장 잘 보이는 매장 입구에 내걸었다.

국내 대기업의 미국법인장 C씨는 최근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다가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시간당 20달러를 지급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구직자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C씨는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사람 취급을 받았다"며 "임금이 이렇게 올랐는지 몰랐다"고 실토했다.



뉴욕 맨해튼 타임스스퀘어에 있는 한 화장품매장에서 내건 구인광고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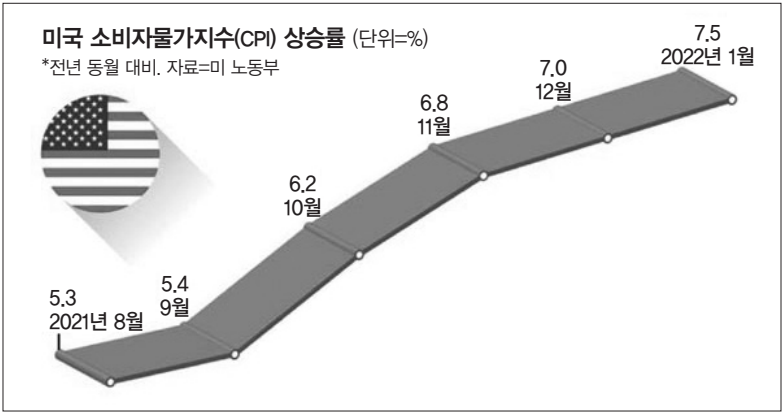
뉴욕지역 중견 기업 대표인 D씨의 경험담이다.

우수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새해 연봉을 20%씩 올려주기로 결정했다. D대표 입장에서는 막대한 인건비 증가를 감수하고 내린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그런데 1월 말에 3명이 동시에 사표를 던졌다. 다른 기업에서 이 이상으로 연봉을 제시해 이적한 것이다. D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 하지만 그래도 회사를 옮긴다는 통보를 해준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MZ세대는 회사를 옮길 때도 '고스팅'(Ghosting) 전법을 쓴다. 고스팅이란 직원이 어느 순간 사라지는 현상이다. 전날까지 멀쩡히 일했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다. 휴가를 낸 것도 아니고, 휴대폰·이메일까지 철저하게 연락을 차단한다.

이런 '잠수타기'에 들어가면 원인은 둘 중 하나다. 이직 또는 조기 은퇴다. 구인난이 극심한 상황에서 고용주보다 근로자의 힘이 세지면서 이런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대량 퇴직'(The Great Resignation) 현상으로 미국에서는 수백만 명이 조기 은퇴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이후 일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고, 주식·코인 투자 등으로 돈을 번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MZ세대나 조기 은퇴를 꿈꾸는 사람들은 'The Great Resignation'을 본인의 관점에서 다르게 해석한다. '용감한 선택'이라는 뉘앙스에서 '위대한 퇴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년 동기대비 7.5%

기업들은 불가피하게 임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다. 신규 채용에서부터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근로자의 위상이 강력해지며 재택근무를 넘어서서 주 4일 근무제로 전환하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다. 버거킹 같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신규 채용을 할 때 사이닝보너스로 1,000~2,000달러를 지급하기도 한다. 또 일할 사람을 추천한 사람에게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겨우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만 오른 것이 아니다. 투자은행 뱅커, 사모펀드·헤지펀드 펀드매니저 등 월가의 고소득 직종 연봉도 두 자릿수로 인상 러시가 일고 있다. 막대한 유동성이 풀렸지만 이를 운용할 인력이 부족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으로 연쇄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뉴욕 대형 로펌의 1년차 변호사 초봉이 20만 달러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특히 인력이 더 심각하게 부족한 IT 엔지니어는 대형 금융회사에 입사할 경우 3~4년 차에 연봉이 20만 달러에 이른다.

임금과 주거비는 한번 오르면 내리지 않는 경직성이 있다. 에너지·식재료 가격이 등락을 거듭하는 것과 다른 점이다. 특히 시차를 두고 서서히 물가에 영향을 주는 임금과 주거비 인상 여파는 지금이 시작이라는 분석도 있다. 구인난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임금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상품 및 노동력 공급이 감소한 상태에서 임금이 올라가면 소비는 늘어난다. 이럴 경우, 다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1월 기준 미국 CPI 상승률은 전년 동기대비 7.5%를 기록했다고 하지만 미국에서 살다 보면 생활에서 체감하는 물가상승률은 그 이상이다.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하러 갔을 때 원하는 타이어를 구할 수 없을 뿐더러 20~30%

씩 인상된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다.

## 공격적 긴축 정책으로 물가 잡겠다지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올해 공격적인 긴축 정책으로 물가를 잡겠다고 나선 상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해 인플레이션을 가볍게 여긴 것이 문제를 더 키웠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파월 의장은 지난해 11월 연임이 결정되기 직전까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transitory)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을 수 차례 강조해온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과 대립각을 세웠지만 결국 파월 의장의 예측이 빗나갔다. 하지만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5월부터 5%를 넘어섰고, 10~11월 6%대, 12월에는 7%대로 점점 올라가고 있다.

중간 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앞에 인플레이션은 최대 아킬레스건이 돼가고 있다. 이선 해리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글로벌경제 리서치 총괄은 "연준은 지난해 가을 금리를 인상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준이 뒤늦게 금리인상에 나서는 만큼,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예상했다. 월가에서는 3월 첫 금리인상을 시작으로 최대 연내 7회 금리인상을 예상하지만, 연준의 실제 금리인상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전망이 더 많다. 금리인상과 양적 긴축(QT, 대차대조표 축소) 정책이 유동성을 흡수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이번 인플레이션은 공급망 혼란, 물류난이 주요 원인이었기 때문에 통화정책으로 이를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연준의 자산을 줄여가는 양적 긴축이라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금리인상의 보완적 수단으로 같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위기 전 4조 2,000억 달러였던 연준의 자산은 현재 8조 9,000억 달러까지 불어났다. 월가에서는 연준이 보유 채권 만기에 재투자하지 않는 식으로 자산을 2조 달러 감축할 경우, 기준금리를 약 1%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

준금리 인상보다 양적 긴축을 어느 정도 속도로, 어느 규모로 단행할지가 뉴욕증시에 매우 큰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워럿 버핏의 절친으로 버크셔 해서웨이 2인자인 찰리 멍거는 최근 인플레이션의 심각성에 대해 강도 높게 경고했다. 멍거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핵전쟁을 제외하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기적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멍거 부회장은 "로마 제국을 멸망으로 몰고 간 원인도 인플레이션이었다"며 "인플레이션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과도하면 문명을 망칠 수 있다"고 말했다.

팬데믹은 모든 역사를 원점에서 새로 쓰는 계기가 됐다. 인플레이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장 위기 극복을 위해 무제한적으로 돈을 풀었으니 이제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시기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법이니.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 파고를 미국이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에 따라 전 세계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널